

이 보도자료는 2023. 3. 24. 1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선문

전화 064-729-4422 / 팩스 0502-193-8359

보도자료
2023. 3. 24.(금)

제 목 **검찰총장,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영 올레!」 동행**

개 요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근수)은 오늘(3. 24.) 소년원생 5명과 함께 올레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손 심영 올레!(손 잡고 올레!)'를 실시하였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행하였음**
- 제주지검이 '22. 5.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와 협력하여 도입한 '손 심영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km)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23. 2.까지 12회에 걸쳐 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3개월 동안 2,0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Seuil)'에서 착안
- '손 심영 올레!'에 참여한 한 소년은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멘토로 8차례 참가한 한 자원봉사자는 "소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다"는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음
- 앞으로 제주지검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의 치유와 선도를 돕는 '손 심영 올레!'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1

‘손 심영 올레!’ 프로그램 개요

- ‘손 심영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손잡고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상처, 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임

*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3개월 동안 2,0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Seuil)’에서 착안

- 위 프로그램은 제주지방검찰청 등 관내 6개의 기관*이 소년범의 처벌 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22. 5. 19.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하였음

* 제주지방검찰청,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 이후 ‘22. 6.부터 ‘23. 2.까지 총 12회에 걸쳐 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손 심영 올레!’를 적극 실시하였고, 금일(3. 24.)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을 대상으로 13번째 ‘손 심영 올레!’에 동행하였음

2

시행 경과

- ‘22. 5. 19. ‘손 심영 올레!’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22. 6. 3. ‘손 심영 올레!’ 유관기관 첫 합동실시
- ‘22. 7.~‘23. 2. 제주지검, 제주소년원 및 제주보호관찰소 총 11회 실시
 - ※ 총 12회, 소년 40명 참여(소년원 재원 소년 22명, 보호관찰 소년 12명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 6명)
- ‘23. 3. 24. 제주지검, 검찰총장 참여 ‘손 심영 올레!’ 추가 실시
 - ※ 소년원 재원 소년 5명 참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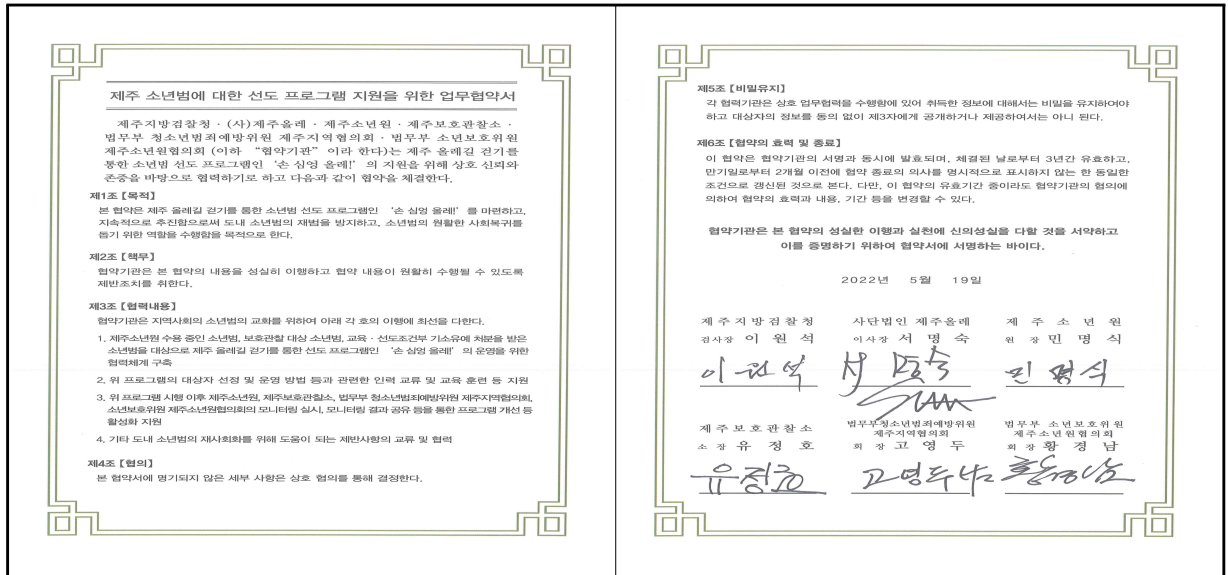
미담 사례

- (프로그램 참여 소년의 감사 인사) '22. 10. 3.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년 권○○은 “멘토들과 손잡고 이야기하며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내왔음 **【별첨 1】**
- (프로그램 참여시 멘토 역할을 한 자원봉사자의 소감) 멘토로서 프로그램에 총 8회 참여한 소년보호위원 한○○은 “함께 손잡고 걸으며 공부, 취업, 부모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게 됐고, 소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다.”는 내용의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음 **【별첨 2】**
- (프로그램 참여 소년에 대한 관리 지속 사례) 제주지검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중 성행이 개선되고, 개선의 정이 뚜렷한 소년 박○○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여 프로그램 참여 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 **【별첨 3】**

4

검찰총장이 참여한 '손 심영 올레' 프로그램 실시

- 제주지검, 제주소년원 등*은 오늘(3. 24.) 10:00부터 15:30까지 제주 올레길 17코스의 일부 구간(제1사라고 ~ 용담포구, 약 13km)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참여하여 제주소년원 재원 중인 소년 5명을 대상으로 열 세 번째 '손 심영 올레!'를 실시하였음
- * 제주지방검찰청,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년범 선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22. 5.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 '손 심영 올레!'의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번 제주지검 격려 방문 중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손 심영 올레!'의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 이원석 검찰총장, 제주지검장, 제주소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회장, 소년보호위원 5명 등 10명은 참여 소년 5명의 멘토가 되어 약 3시간 동안 함께 걷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였음
- 참여 소년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이원석 검찰총장 등 멘토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고, 멘토들은 경험담 등 얘기를 통해 소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음

5 향후 계획

- 제주지검은 관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손 심영 올레!'를 체계화·제도화하고, 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앞으로 위 프로그램이 소년 선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검찰총장이 참여한 '손 심영 올레!' 프로그램 사진 추후 송부

【별첨 2】

행복한 올레길

제과에 살면서 올레길에 대해 많은 얘기였지만 내 생각에 올레길은
쉽지 않다. 시간이 없고 돈이 아깝다 보니 생각할 겨를 없다. 그저 항상
내 집 앞에 올레라는 생각만 하지만 제과원에서 올레길 행사가
있다고 참석할 위원장은 매년 접수하고 있다. 가는 암실명 없이
플릭 접수 참석한다고 앤스에 올렸다.

타지밤에 제과원도 제과 올레길을 인수했다고 자랑하는데 간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젠 제과에 살면서 이제야 걸다니 생각안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더한 행복은 같이 등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학생들이다. 항상 학생들과 있으면 행복하다. 땀을 만들때
학생들이 시편생활 등 능숙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는 한다.
그런데 그런 학생과 같이 걷는다: 생각하니 뭔가 준비하고 싶어진다.
그때 마음 준비인기 상용인 소수 땀을 관리하고 싶어진다.
조금은 걱정도 있다. 시편에서 공부하면서 무름이 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락짐 걸기로 마음 먹었다. 그옛날에 소풍전밖에 감을 실리듯
이쯤에 일찍부터 점심들여 소수 땀을 만들었다. 학생과 생김새 반응이
강하다. 점심들여 만든 땀인데 생각하면서 원어로 각 했을때
학생들이 행사 준비에 환호인듯하다. 관 소수 땀을 책상 위에 놓 시서
권했다. 완전 피리가 시작이다. 대성금 문두가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무름이 걱정이야. 하트 다리 편서없이 행사에 참석했으니
그때 감으면서 걸기로 한 차량에 감응 내 열감기에는 바터 캔트
활성이 있다. 학교 생활실에서 손이 많이 잡지만 여기서 또 잡고 있다.
... ..

학생이 이론, 개념 등 철학은 있지만 이러한 밖에서 단단적은 없다
나도 그렇지만 학생으로 설러는것 좋다 서로 일것만 하면서 웃는다
지금 가슴은 뜨겁 손에온 땀이 가득하다 제법술이거 상판술에서
산뜻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바깥에서 만나다 보니까 많이떨린다
눈에 보이는것이 많은 하제거려다 좋은날씨. 아다. 제과아관등 하는일은 얘기가
많이 죽인다 하지만 그것보다 학생이 알듯이 라 중요한다! 하나씩
잡근히기로 마음 먹었다 취업, 공부, 취업일 관려등 관라가 때문에 못한얘기가
없다 근데 학생이 먼저 물어본다. 다리가 불편하시냐고 내 행동이 불편한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어볼 것이다 원장님께서도 걱정한다. 관 관찮다고
원장님께 얘기하고 학생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얘기했다 생각정확듯
취업일게로 조급한 거절해 갈라고 또 아뜻얘기를했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다친것이 라고했다 학생이 놀란다 저런로 공부하냐고 그대 저승부터
얘기 하기로? 지금 가이에도 공부한다고 그래서 공부한 지금은 제법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손조롭게 잡는다 물론 손은 한번도 놓지않았다
학생도 나로 놀고 싶어않았다 다른 생각 취업일, 학생들이 누리워한다
지금 학생은 원소하면 생제과정에 찾아온만다 물론로 노라고했다
우리 제과정은 농장장에게하듯 제2순변원이라고 한다 그래도 학생에게는 친절하다
가게에 찾아오면 다다를 하면서 얘기를한다 어떤 학생은 취업일과 같이온다
그러면 취업일에게로 부탁한다 조급한 마음을 열어준다 학생도 기대하고
있으면 올라오게 살게 할려고 신경쓴다고 취업일로 얘기한다
학생에게 제법술에서 애원만큼만 사립에서도 생각하면서 잘지게라고 신신장부
어느덧 갈다보니 쉬는시간 위하는 간식으로 빵과 과자, 아사 등을 먹기위해

편지를 읽는데 학생이 원장님과 선생님에게 먼저 드린다
대문이 중요하다 제발 실수물에서 땀을 안들면 먼저 선생님께
드리는 습관을 배웠다 제발 이런 행동이 계속되길 바란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정중하고 얘기 하면서 권자 사회의
앞면으로 우뚝서기를 기대하고 밝은 미래를 선계로 가면서
너의 희망관 앞날을 항상 지원해준다
최강에 랭크 원에 도착 했을때 어느새 학생과 ^{나는} 가슴을 맞치고 있다
다음 주엽시간에 보자. 안녕 -

소년보초위원

【별첨 3】

